

코스피	5170.81 (+85.96)	코스닥	1133.52 (+50.93)
금리 (국고채 5년)	3.067 (-0.027)	환율 (원·달러)	1425.50 (-20.7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레이스 스타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2월3일)을 앞두고 28일 오후 인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자와 각 정당에 전달할 선거 사무 안내 및 선거법 안내 책자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6월3일 실시된다. /뉴시스

‘앵그리 머니’ 증시 몰렸다 투자자에탁금 100조 돌파

은행 탈출 자금, 증권 계좌로

“예금 이자는 쥐꼬리만 한데 시장은 거침없이 오르고 있네요. ‘내 집’ 없는 사람이 돈 벌 방법은 주식밖에 없어요.” 자신을 주부라고 밝힌 A씨가 최근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얘기다. A씨는 “주식 초보자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사는 게 금리가 2.8%대인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 낫겠다 싶어 새로 증권 계좌를 열기로 마음먹었다.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와 상담 일정도 잡아 뒀다”라고 말했다. A씨 외에도 모바일 등을 통해 증시 계좌를 여는 새내기 개미들이 늘고 있고, 증권사로 퇴직연금 실물 이전을 하고 있다.

올해 신용융자 2조 늘어 29조 은행 입출금·정기예금 급감소

증권사 영업센터 한 관계자는 “증시가 활황세를 띠자 고객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라고 전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속 집도 없는데 주식도 오르고,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 지친 ‘앵그리 머니’가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주식을 사기 위해 투자가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투자자에탁금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투자자에탁금은 100조282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92조원을 넘은 이후로 8일 만에 약8조원이 유입된 것이다.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벌린 돈(신용융자)은 29조원(29조245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만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사실상 개인이 즉시 증시에 투입할 수 있는 실탄(투자예탁금+신용융자)만 130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약 961조원)의 13% 해당하는 규모다.

‘앵그리 머니’ 덕에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5170.81포인트, 1133.52까지 치솟았다.

열 받은 돈의 은행 탈출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이달 26일 기준 641조276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2조7321억원 급감했다. 지난해 10월 말 21조8674억원이 줄어든 이후 11월과 12월에 각각 1조8968억원, 24조2552억원씩 늘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시장금리부 예금(MMDA) 등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대신 언제든지 입·출금할 수 있는 자금이다. 부동산 자금의 대표주자 격이다.

정기예금 잔액(932조3494억원)은 올해 들어 6조9368억원 줄었다.

앵그리 머니의 밑바탕에는 ‘벼락 지지(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산 격차가 벌어진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상승장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포모(FOMO) 증후군’ 등으로 인한 조바심이 깔려 있다.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시중에 풀린 자금이 넘쳐나면서 유동성이 특정 업종과 종목에 몰리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실물 경기와 괴리가 커지면서 급격히 조정반을 위험도 커졌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쿠팡 ‘배송규제’ 마트 ‘빚장 해제’ 15조 새벽배송 시장 격변 예고

국회, 규제방안 촉구 토론회

“야간노동, 유방암·전립선암 원인
금전보상 아닌 시간자체 제한을”

“마트 영업시간·배송 규제 풀어
이커머스-유통사 상생 해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야간배송 노동자의 주간 노동시간 상한을 46~5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썩어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형마트·SSM 유통산업발전법 규제가 쿠팡을 포함한 이커머스가 크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며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역차별 해소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15조원 규모로 성장한 새벽배송 시장에 이커머스 노동 규제 강화와 오프라인 유통 규제 완화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벽배송이 노동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의견이 모여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형렬 가톨릭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노동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군(2A) 발암물질로 유방암·전립선암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수면 장애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금전적 보상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간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역시 “건설 현장 추락사고는 중대재해로 관리되지만 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는 개인 질병으로 치부돼 예방 조치가 전무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무한 경쟁 구조를 ‘죽음의 레이스’로 규정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연구위원은 “쿠팡이 24시간 풀가동 시스템으로 시장을 장악하자 경쟁사들도 어쩔 수 없이 야간노동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 상한선을 두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가린 연구원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낮은 단가와 알고리즘의 압박 때문에 야간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예방 의무를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는 입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택배 사회적대화기구는 지난 23일 주간 총 노동시간을 46~50시간으로 제한하는 원칙에 대해 택배회사·대리점·기사단체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냈으며, 설 연휴 전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벽배송 마감시간(6시) 압박 금지 및 미준수 불이익 금지,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및 연속근무 시 의무 휴무 보장, 하루 8시간 초과근무 제한 등 여러 원칙도 포함됐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새벽시간 영업 및 배송 금지 규제가 오히려 특정 기업의 독점을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대형마트와 SSM을 향한 야간 운영 및 배송 규제 해소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유통 매출은 전년 대비 11.8% 성장하며 전체 시장의 59.0%를 장악했지만 대형마트는 4.2% 역성장했다. 업계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은 사이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틈새를 파고들어 15조 원 규모의 새벽배송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기를 올린 운동장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한다. <2면에 계속>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4분기 영업이익률 58% ‘대기록’

지난해 매출액 97조 ‘사상최대’
영업익 47조 기록, 2배수준 성장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은 물론 영업이익률이 60%에 가까운 경이로운 성적표를 냈다.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주요 구조에 맞춰 기술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28일 실적발표에서 2025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97조 1467억원, 영업이익 47조 2063억원(영업이익률 49%), 순이익 42조 9479억원(순이익률 44%)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4년 대비 매출은 30조 원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은 2배 수준으로 성장하며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새로 썼다.

4분기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4분기에는 HBM 뿐만 아니라 서버용 일반 메모리 수요도 크게 늘어났고, 이에 적극 대응한 결과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SK하이닉스

34% 증가한 32조8267억원, 영업이익은 68% 증가한 19조1696억원, 영업이익률 58%를 기록하며 세 지표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제조업체로 6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올림에 따라 호황기 반도체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을 확실히 입증했다.

구체적으로 D램 부문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성장해 역대 최대 실적 창출에 기여했다. 일반 D램도 10나노급 6세대(1c나노) DDR5의 본격 양산에 돌입하고, 10나노급 5세대(1b나노) 32Gb 기반 업계 최대 용량 256GB DDR5 RDIMM

개발을 통해 서버용 모듈 분야 리더십을 입증했다.

낸드 부문 역시 상반기 수요 부진 속에서도 321단 QLC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기업용 SSD 중심 수요에 대응하며 연간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회사는 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전환하며 분산형 아키텍처 수요가 확대돼 메모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뿐 아니라 서버용 D램과 낸드 등 전반적인 메모리의 수요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HBM3E와 HBM4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계 유일 기업으로서 확보된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 우위는 물론 검증된 품질과 양산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구축한 HBM4는 고객이 요청한 물량을 현재 양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구윤철 “美에 관세 합의 이행 의지 적극 설명…국회와 긴밀히 소통” /사진 뉴시스
▲박수영 “한동훈, 두 번의 기회 놓쳐…장동혁 단식 이어받았어야”

▲與 한준호 “지선 앞둔 합당, 적절치 않아…鄭 행위 자체가 의심 불러와”
▲北 미사일에 한미일 전화협의…“안보리 결의 위반”

▲당정,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제시…상반기 입법 추진
▲민주노총 “야간노동, 휴식 보장 등 ‘회복’ 전제로 한 규제 있어야…산안법 적용 필요”